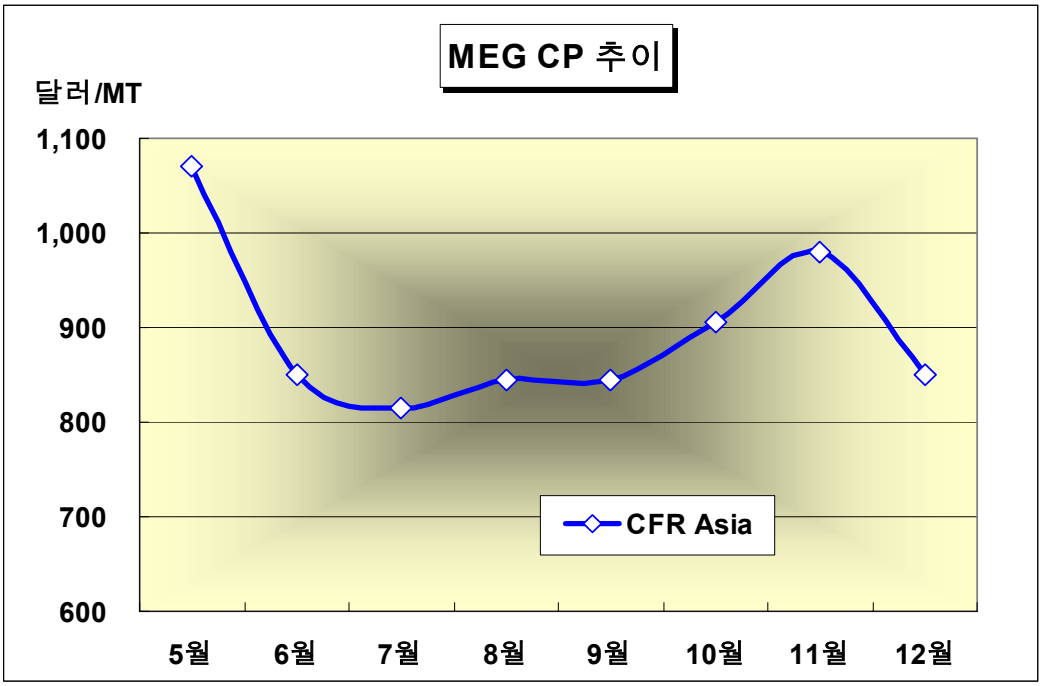
MEG, 12월 CP 850달러로 "폭락"

MEGlobal · Sabic 이어 Shell도 동참 … 계절적 비수기로 약세 전환

MEG(Mono-Ethylene Glycol) 12월 계약가격(CP)이 CFR Asia 톤당 850달러로 마감됐다.

MEGlobal(Dow)이 11월9일 톤당 850달러, Sabic이 11월14일 850달러를 발표한 이후 Shell 역시 11월17일 850달러를 고시했다.

미국의 허리케인 쇼크로 10월 계약가격은 MEGlobal/Shell 920달러, Sabic 890달러로 60달러, 11월 계약가격은 MEGlobal/Shell 1020달러, Sabic 940달러로 각각 100달러, 50달러 급등했으나 12월 계약가격은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고 아시아 폴리에스터(Polyester) 부문의 계절적 비수기가 겹쳐 각각 170달러, 90달러 급락했다.



한편, MEG Spot 가격은 아시아가 11월11일 FOB Korea 톤당 795-810달러로 12달러 하락했고 미국이 FOB US Gulf 파운드당 52.00-54.00센트로 톤당 1168달러를 형성해 보합세를 유지했다. <김건우 기자>

<화학저널 2005/11/21>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